



# 군종주보

2026년 7월 26일(제1310호)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코스피 지수와 하느님 나라”

얼마 전 코스피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오를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래야 배당을 잘 받든지, 비싼 값에 팔아치우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합니다. 회사의 숨겨진 가치와 미래를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복음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들이는 사람과, 좋은 진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처럼 충분한 투자가치와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밭과 진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다라도 그것이 보물과 값진 진주인 줄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 밭과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그것을 구매합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자기 것을 투자합니다. 혹은 하느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곁에 있는 가족과 형제자매를 통해 ‘하느님 나라는 엄청 가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며 나도 하느님 나라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한 사람은 분명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52)라는 말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투자했을 때에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는 보물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머나먼 미래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모든 것을 투자한 예시로 오늘 제1독서에는 솔로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청하지 않고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하느님 나라의 귀한 보물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으니, 이 세상의 다른 것들도 선물로서 따라오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에 투자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크고 귀한 보물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투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인(시도요한) 신부  
철성(육군 제7보병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회 례 송 제 2 독 시 복음 본문송

1열왕 3,5-6 7.7-12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로마 8,28-30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13,44-5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천주교 군중교구사(군 사목 50년사)

### 8) 1950년대의 두 신부

#### (1) 군 사목의 개척자 안달원 신부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중제도가 창설됨에 따라 1953년 4월까지 육군에 입대한 군중요원은 모두 48명이었다. 이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남다른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군 사목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이 때가 군중사적인 면에서 개척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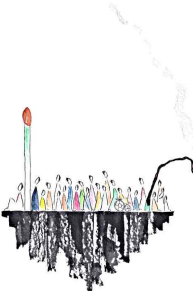
그런데 휴전이 성립되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신부들이 제대를 하고 소속 교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명의 신부들만이 현역으로 임관하여 열악한 조건하에서 군 사목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시기가 군 사목의 침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 사목의 침체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 1950년대 천주교 군중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신부가 바로 안달원 신부였다.

안달원 신부는 당시 대구교구 출신으로, 1920년 7월 1일 출생하여 경성 천주공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 1947년 4월 12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 후 부산진 본당(현 범일동 본당)에서 2년 간 보좌신부로 사목활동을 하였으며, 1949년 8월 8일부터 신설된 창녕 본당 주임신부로 재직하던 중 1951년 10월 1일 육군 군중 제3기로 제297부대에 입대하여 10월 27일 무보수 촉탁 신분으로 군중신부로 임관하였다.

임관 직후 안 신부는 당시 제주도의 제1훈련소의 신부로 부임하여 1953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재직하였다. 이후 그는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군 사목을 담당하였으며, 국군 병장포로 인수본부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53년 6월 15일 제2군단 신부로 부임하여 13개월 동안 육군 제3, 제5, 제8사단 등까지 담당하였으며, 군중감실이 설치되자 1954년 7월 10일 유급 문관 신분으로 군중차감에 보임되었다. 그리고 개신교와의 갈등으로 예편한 조인원 신부의 뒤를 이어 천주교 대표신부로도 활동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 『천주교 군중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중교구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span>복</span> <span>음</span> <span>목</span> <span>상</span> </div> | <p>-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p>                                                                                                                                                                                                                                                                                                                                                                                                | <p>◆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br/>〈군장병의 편지〉 읽고 모집</p>                                                                                                                                                                                                                   |
|                                                                                  |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보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온전히 자신을 소진해<br/>주위를 밝히는<br/>이들이 있습니다.</p> <p>온전히 자신을 희생해<br/>누군가를 지켜내는<br/>이들이 있습니다.</p> </div> <div style="width: 45%;"> <p>바로 지금 이 자리를<br/>지키며 사는<br/>우리입니다.</p> <p>우리는 누구나<br/>귀한 보물입니다.</p> </div> </div> <p>▶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br/>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량: A4 반쪽~한쪽</li> <li>-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청곡 기능)</li> <li>- 기한: 연중 상시 접수</li> <li>- 접수: 군중교구 농보국 (hongbo@gunjong.or.kr)</li> <li>- 신청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li> <li>-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li> </ul> |

## 상화이야기

## <예수님의 생애> 연작(4)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님의 생애> 연작 마지막 작품을 살펴본다.

### <병자들을 고지시는 예수님>

마치 봄의 정경 속 한 장면인 듯, 나무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예수님께서 모여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신다. 짙신을 신고 두 손을 모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에게서는 마치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그 옆에는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봉헌하듯 보여드리는 아낙네와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할머니가 보인다. 그 뒤로도 많은 이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전경에는 다리가 불편한 이, 등이 굽은 이, 거동이 어려운 이 등 여러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먼 배경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핀 듯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과 짙으로 엮은 담, 그리고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인다. 이 모든 정경과 등장인물들의 묘사가 친근하면서도 몽클하게 다가온다.

###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색동옷 등 각양각색의 앙증맞은 의복을 입고 다양한 표정을 한 아이들과 함께 온 어머니들이 앉아 계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의 등에 업히거나 품에 안겨 이 광경을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어린 한국 아이와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모습은 정겹고 친근하며 아름답다.

한국의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김은혜(엘리사벳)

## 교구소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방패 정재원 신부

###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7월 2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존인성사의 해”